

#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0. 3.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3월 18일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손 병 두 부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 의결안건 제81호~제102호, 보고안건 제8~11호 참여

심 영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3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4차 금융위 회의록, 2020년도 제2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5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2020년도 제4차 금융위 회의록, 2020년도 제2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5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80호 『예금보험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81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한국은행도 주금공의 주주로서 말씀드리면,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배당을 하고 이후 재원이 부족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만큼, 배당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금융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보고자) 그러함. 그 점을 기재부에 설명하였고 기재부에서도 인정해서 이번에 배당을 전액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2호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83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84호 『나이스평가정보(주) 및 SK텔레콤(주) 등 3개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85호 『(주)KT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86호 『(주)엘핀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87호 『SK플래닛(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88호 『(주)오라인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89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0호 『토스준비법인(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19년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20.5.27. 시행)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19년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과제 이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3호 『아시아신탁(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시아신탁(주) 임직원이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  
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어 과  
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4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지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위탁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을 경우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 이득을 덜 봤을 수

도 있을 것 같음. 이런 경우 손해배상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 (보고자) 위탁자 손해 부분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 ××,×××원 미만이었고 ×건에 대해서는 ×××,×××원 정도였는데 신탁보수를 감면함으로써 사실상 위탁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5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향후 감사인 지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

- (위원) 지방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해당 회계법인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그냥 놔두고 지정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선택적으로 가면 안 되는지?

- (보고자) 원래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수를 40인 이상으로 하려고 했음. 그런데 작년에 등록요건을 마련하면서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본점을 지방에 둔 지방회계법인이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20인으로 낮춰서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게 해주되 지정까지 해 주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해서 균형(balance)을 맞춘 것임. 왜 그러냐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이 안 되면 기존에 자유수입했던 상장사도 감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6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 개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9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 개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98호 『(서울)푸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 paydex) 개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99호 『(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과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법대출 등으로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을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제주)서귀포신용협동조합에서 흡수합병하고자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100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소송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중요 소송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제도 폐지, 재보험자산 전액 감액 예외마련 등 기업정보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 (위원) 보험요율과 관련해서 통계요율과 비통계요율의 차액을 그동안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고 함. 그런데 적용된 사례가 없는 사유가 적립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사례가 없지 않았나 생각됨.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개정을 해서 낮은 비통계요율을 사용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지나치게 낮은 비통계요율을 사용할 유인이 생긴다는 것임. 그래서 IFRS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듬.

- (보고자) 기본적으로는 보험요율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기업정보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이라든지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거쳐서 판단한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음.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이 판단요율 부분을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덤핑 수준과 같은 그런 요율을 책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

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었음. 그런데 실제 판단요율을 허용하고 난 다음에 6개 보험회사가 해상·기술·재산종합·배상 보험 등에서 판단요율을 적용 중이지만 그 요율수준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수준이고 따라서 이런 인위적인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제도 자체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음. 또 하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자체는 이번이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곧 IFRS17이 시행되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자체가 없어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추가 유예한다고 해도 적용되는 시기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된 것임.

- (보고자) 의무보험 같은 경우 이번에 무조건 통계요율을 써야 되는 것임. 다만, 임의보험 중에 비통계요율을 쓸 수 있도록 하되 그동안 운용을 해보니까 원래 규정을 만들 때는 임의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 덤핑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통계요율을 적용했을 때와 비통계요율을 적용했을 때의 차액을 추가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음. 그동안 진행경과를 보니까 전혀 이런 문제가 없던 내용임. 그리고 IFRS17이 시행되면 부채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임의보험에서 요율덤핑 사례가 전혀 없었음. 그래서 당초에 규정을 개정할 때 이것은 좀 지나치게 우려해서 넣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험업계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위원)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임. 현재는 낮은 판단요율을 사용할 경우 통계요율대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겨 낮은 판단요

율을 사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임.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없는 환경임.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낮은 판단요율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낮은 판단요율로 바뀌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임.

- (보고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다가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규정상 도입은 됐었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계속 유예만 되어 왔었음. 그러니까 규정은 있는데 사문화된 상태로 그냥 쪽 진행이 되어 온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내용임.

- (위원) 필요하지 않은 제도였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2호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조건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이 보험업 허가조건을 준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요청한 현행 허가조건의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8호 『코로나19에 따른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이 보험업 허가조건을 준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요청한 현행 허가조건의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5월말까지로 하면 준비가 충분히 되는지 추가로 협의를 해 보았는지?
- (보고자) 그러함. 전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 보니까 상품 개정 진척률이 현재 상당수 회사에서 50%이상 이미 진행되고 있음. 이 규정이 이미 금년 1월15일에 시행이 됐음. 그래서 일부 회사는 거의 준비가 다 된 회사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봤지만 2개월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상황임.
- (위원) 코로나19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사의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보험 같은 것이 대량 해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택근무라든지 분산근무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 (보고자) 통상 상품을 개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소요됨. 크게 보면 상품개정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 유관부서 간 협의사항이 있음. 먼저, 상품개발을 하려고 하면 상품개정안 기초서류작성을 해야 됨. 두 번째는 요율산출을 해야 되고, 또 요율 검증을 해야 됨.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하면 고객 안내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가입자 교육자료도 작성해야 됨.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검토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나 분쟁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소위 말해서 보험회사 내에 상품위원회라고 해서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 이런 기간이 통상 한 8주~10주 정도 소요됨.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갑자기 발생되다보니까 지금 일부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야근을 하기에다 제한적인 요인도 되어서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은 일부 회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4월1일자 시행이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회사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과와 협의를 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 것임.
- (위원) 지금 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 쪽에서는 잘하신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비조치로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국장님들께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달해서 정부에서 필요할 때 금융회사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됐으면 좋겠음.

- (보고자) 알겠음.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많지만 특히 보험업 쪽 같은 경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9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제10호 『2019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행정지도·감독 행정 현황 보고』, 제11호 『금융위원회 ombudsman 2019년 활동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03분 폐회)